

■ (언론 동향) 2021.12.1. “농민신문” 보도

○ “농업용 원자재가격, 내년 봄까지 치솟을 것”

- 네덜란드 금융협동조합 보고서

농업용 원자재가격 상승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네덜란드의 다국적 금융협동조합인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 통해 “전세계에 유통되는 비료의 유효성분 70~75%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현재와 같은 난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번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도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제의 수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널리 쓰이는 제조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가격은 전년 대비 최소 100%에서 최대 300% 상승했으며, 또 다른 제조제 성분인 글루포시네이트도 전년 대비 50%가 올랐다.

원인은 중국의 전세계 공급물량 축소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역 봉쇄로 원자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내수를 위한 비축에 나서며 해외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중간재는 생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국제 유통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원자재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정치적 해결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김서진 기자 >